

# 정기건강검사 꼭 필요하다

## 조 한 익

질병은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생명을 앗아가는 많은 질병들이, 조기에 발견되었으면 치유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당뇨병의 경우 혈당이 상승됨으로 인하여 혈관질환, 안질환, 신경계질환 등이 병발되어 위험하게 되는 것이다.

빈혈을 일으키는 질환인 경우에도 서서히 진행되는 빈혈은 빈혈의 정도가 상당히 심해질 때까지 환자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수가 있다. 따라서 빈혈이 심해져 의사를 찾게 될 때쯤이면 아주 심해져 치료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된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시되는 경우가 바로 암이다. 악성 암의 경우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전 치유가 가능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정기 건강 검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조기에 발견되는 질환들

건강진단이라고 해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어떤 질병은 조기에 발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건강검사의 종목은 진단 대상군에서 비교적 발생빈도가 많은 질환을 목표로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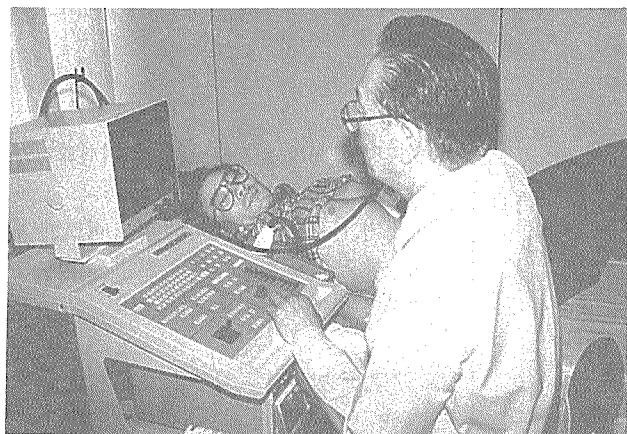
HBsAg검사는 B형 간염 항원 검사이다. B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 약 10%가 보균자이거나 간염을 앓고 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0.5% 이하이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검사 종목에 간염을 포함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항원검사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흔한 질병으로는 B형 간염, 당뇨병, 고혈압, 신질환, 폐결핵 그리고 여자에게 철결핍성 빈혈 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건강검사는 주로 이들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의 신생아에서 선천적 질환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건강 검사도 필요하며 또한 노인연령층에서의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의 개발도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검사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병을 발견하는 효율성을



건강검사는  
대체로  
1년에 1회정도  
해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건강검사의 질병 발견율

최근에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보면 고혈압으로 진단된 것이 8%였고 빈혈이 남자 0.79%, 여자 4.87%였다. 당뇨병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1.72%였고 간염의 현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3.25%였다.

이렇게 발견된 질환은 치료를 조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 외에도 특정 질병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경고의 효과가 있어 음식 등 일상생활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 건강검사의 시기

질병의 발생이 나이,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대체로 1년에 1회의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나이에 따라 청년기에는 2년마다, 장년기에는 1년마다 검진받도록 하기도 하지만 뚜렷한 근거에 의한 주장은 아니다.

###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

건강진단은 주로 임상병리 검사가 주를 이루고 그 외에 X-선 촬영, 의사에 의한 진찰 등으로 실시된다. 그러므로 이들 두 분야를 책임지고 해나갈 수 있는 인력이 구비된 기관이어야 한다. 즉 임상병리 전문의와 진단 방사선 전문의가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검사를 했다고 해서 모두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어떤 시설을 갖춘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믿을 수 있는 기관들이 건강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질병의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서울의대 교수>